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5

2019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지린다.



싱그러운 5월! 구탄봉에서 바라본 양양

양양소식

Vol. 288

CONTENTS

양양소식 · 288호

| 발행일 2019년 4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의기양양

4 뉴스 브리핑

4 100년 전 그날의 외침, 양양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

5 100세 시대, 제14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전 '성료'

6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 본격 추진

7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차질

8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9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0 의정소식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희망양양

- 12 기획취재 다시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
- 14 ISSUE & PEOPLE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은자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4월 5일 물치 장날 만세운동

오감양양

- 18 SNS 속 양양 톡톡! 마음을 터놓는 우리만의 시간
-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현북면 면옥치리
- 22 맛있는 양양여행 '복쌈'과 '춘반(春盤)'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꾸베씨의 행복여행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100년 전 그날의 외침, 양양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

지난 4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군청 앞 사거리에서 '양양의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양양 지역은 기미년 일제에 항거해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역사적인 고장으로 1919년 4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개된 만세운동에 1만 5천 명 이상이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행사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동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거행된 양양장터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재발견하여 선열들의 호국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양양인의 높은 기상 및 애국 애항심을 진작하고자 개최됐다.

유족 및 군인, 주민, 사회단체 등 천여명이 참석한 기념행사는 군청 앞 사거리에서 2시간 가량 이루어졌으며,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시장방향), 서(서문리방향), 남(남대천방향)의 양양 곳곳에서 모여든 만세 군중들이 군청 앞 사거리로 집결하여 연극과 한풀이춤 등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만세운동을 하며 행사참여자 전원의 만세 삼창으로 재현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이번 100주년 행사를 통해 양양 기



미독립만세운동으로 희생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양양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나아가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 Tel. 033-670-2728



100세 시대, 제14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전 ‘성료’ 선수 및 임원 3천여 명 다녀가, 지역 음식점·숙박업소 특수

양양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14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강원도 어르신들의 열띤 열기 속에 지난 1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우리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강원도민생활체육전 개최 경험에 힘입어 이번 두 번째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에서도 3만 군민의 성원 속에 치밀한 대회 준비와 친절한 손님맞이로 훌륭한 대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양양종합운동장 외 15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4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전에는 도내 18개 시·군 만60세 이상 동호인과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선사했다.

강원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양양군체육회와 종목별 회원단체가 주관한 이번 체육대회는 육상, 축구, 테니스, 탁구, 자전거, 궁도, 체조, 배드민턴, 산악, 바둑,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등 13개 종목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 선수들은 개회식에 이어 양양국민체육센터와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띤 경기를

펼치며 체육대회를 뜨겁게 달궜다.

성공적인 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생활체육전 기간 대형콘도를 비롯해 양양읍 시가지와 낙산지구 등에 위치한 중소형 숙박업소가 참가선수단을 수용하면서 모처럼 특수를 누렸고, 이 기간 음식점 매출도 크게 늘었다.

군은 내년도 개최되는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해 생활스포츠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담당 Tel. 033-670-2731



장기간 표류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 본격 추진 전망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양양읍 연창리에 위치한 터미널은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이에 우리군은 2008년 '여객터미널 이전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11년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를 터미널 부지로 확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터미널 부지 진·출입로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2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전(移轉) 터미널 앞에 교차로를 신설하고자 하면 기존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앞 교차로를 폐쇄하고 출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우리군이 제시한 출구예정지에 제설 창고를 증축할 예정이었고, 더구나 대형 국토관리차량(제설 덤프)과 터미널 버스 등 상층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터미널이 이전되면 기존에 있는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진·출입이 불편해질 수 있어 서로 만족할만한 방안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절충안이 나온 만큼 이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했다면 절대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문제였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양보해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터미널 부지 확장에 흔쾌히 동의해준 양양농협 측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새로 이전하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14,879㎡ 부지에 터미

널 시설 8,989㎡, 내부 도로 5,890㎡ 규모로 조성되며, 인근에 양양농협 유통업무설비 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양양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공간 확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군은 변경된 입안 도서를 재작성하고 관련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부지매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후 내년 6월 이전에 착공, 2021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 조성되는 터미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44번 국도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7번국도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방향으로 연결되는 연계교통망도 추가 확충한다. 우리군은 양양IC로 진출한 고속·시외버스가 44번국도 종합운동장에서 양우내안애APT~송암리를 거쳐 7번국도(신규 여객터미널)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군 계획도로 1.2km(폭15m)를 개설한다.

이 지역은 군이 추진하는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와도 연계돼 있어 사업추진이 시급한 만큼, 총 95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까지 도로 개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군수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플라이 강원이 연내 취항을 목표로 하는 등 우리군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전(移轉) 터미널이 공영터미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대외정책과 정책개발담당 Tel. 033-670-2123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차질

행정계획 지연, 군관리계획 수립 표류...주민 "건물 신·증축 못해"



우리군 해안가 일대가 낙산도립공원 구역에서 대폭 해제됐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 낙산도립공원 구역인 강현면 정암리부터 현북면 잔교리까지 8,681,823㎡ 구간을 지정 40여년 만에 전면 해제 했다.

이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은 예전 '자연공원법' 대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해제 결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차(1.16. 4.11)에 걸쳐 우리군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낙산도립공원 해제 시 국립공원위원회 해제승인조건인 5가지 조건 중 미이행 사항 등의 이유로 2차례 모두 반려된 상태이다.

미이행 사항은 보전연안해역 지정과 도립공원 대체지정으로, 보전연안해역 지정은 현재 강원도심의 계획 중에 있으며, 도립공원 대체지정은 지난 3월 29일 중앙산지위원회에서 황성

군 태기산 도립공원지정 건에 대하여 부결한 상태로 해당군에서는 부결이유를 검토해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농어촌 주택, 소매점, 마을회관, 종교시설, 양어장, 묘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전 도립공원 구역 당시 가능했던 개인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 등 대부분의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행위도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생활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원해제 후 주민들은 최소한의 개발과 공원의 규제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평가서(초안) 반려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주민들은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승인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본안에 보완 조치하여 제출할 사항을 반려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행정계획이 늦어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 오는 5월에 반려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 협의를 마친 뒤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문의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 Tel. 033-670-2193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단,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남자일반부 종합 3위

양양군 남자사이클팀이 지난19일 전남 나주에서 막을 내린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남자일반부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메달 획득상황을 보면 김청수선수 스프린트 1위, 김주석선수 템포레이스(10Km)2위, 강석호 선수 스크래치(5km) 3위, 김황희 선수 옴니엄(제외경기) 2위, 옴니엄(템포레이스 10km) 3위, 옴니엄(포인트24km)3위의 성적을, 김청수, 오제석, 오민재 선수의 단체스프린트경기에서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양양군 남자사이클팀은 지난 1991년 여자 팀으로 창단한 양양군청 사이클 팀이 96년 남자 실업팀으로 전환돼 현재 박상택 감독의 지휘 아래 오제석, 김청수, 오민재, 김황희, 김주석, 강석호, 유상혁 총7명의 선수들과 이



호식 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Tel. 033-670-2731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당 1대, 숙박시설 100㎡당 1대 등

우리군은 4월부터 건축물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양양군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일부 누락된 시설물이 있어 이를 포함하고, 근린생활·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부족한 주차대수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근린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장을,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 조성, 단, 관광숙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0.5대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302평) 규모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기

존 5대에서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기존 아파트만을 규정했던 조항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공동주택은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일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고, 기존에 전용면적 85㎡ 이하는 세대당 1.1대 설치하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1.5대로 변경하여 주차대수를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8대 이상으로 설치하는 안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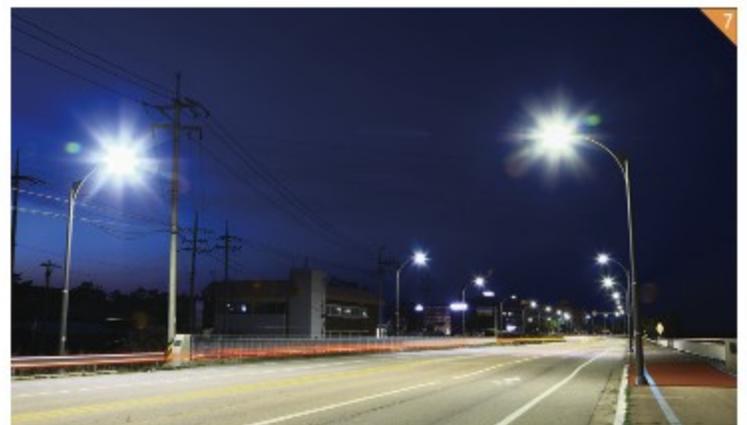
군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을 세분화했으며, 숙박시설과 단련주점, 공동주택 등은 이전보다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며 “도심지역 내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Tel. 033-670-2170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여행이 기부다. 'Again, Go East' 캠페인
2. 올해도 풍년! 강원도 첫 모내기가 현남에서 시작되었어요(4.17)
3. 함께가요~! 양양군-농협네트웍스 업무협약식(4.16)
4. 건강지킴이! 보건소 혈관백세 건강교실 운영
5. 날개없는 천사~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4.16)
6. 백세시대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남자부 준우승(4.10)
7. 낙산대교가 밝아졌어요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8건 등 15개 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4월 23일부터 8일간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8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201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4월 23일 개의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김귀선)에서는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집행부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 간사 박봉균)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오는 4월 30일 개의되는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제철 양양군의회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만큼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의원 간담회 개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사전 간담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4월 네 차례에 걸쳐 7개의 안건을 놓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안과 관련하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방향을 납득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양군 합창단 창단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의견과 기존에 양양문화원 소속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양양 600합창단과의 갈등 야기 및 조례 제정 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2019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유지 취득,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해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강부농장 부지내 사유재산 취



득, 대체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강부농장 부지내 사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향후 양양군내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추가로 있는 지 확인하고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논의했다.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위로 방문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 의원들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1일 까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5개 양양군 인접시군(속초, 인제, 고성, 강릉, 동해)과 양양군 주둔 예하부대를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성금 각각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2005년 낙산사 산불과 올해 초 발생한 양양 산불 때 인근 시군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에 보답하는 마



음으로 위문에 나섰다.

고제철 양양군의회 의장은 “우리군이 화마의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각지에서 보내준 도움의 손길 덕분에 힘을 내고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비록 약소하지만 우리가 전달한 위로의 마음이 피해지역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시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아온 시간은 행복하지만 이름을 잊은 채 사는 삶은 어쩐지 허전함이 느껴진다. 재취업을 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TV 속 광고처럼 육아와 살림은 그야말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다. 결혼, 출산과 육아를 거쳐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양양새일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4년 만에 꼭 맞는 일자리 찾았어요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의 식품제조기업에서 일하는 박진주 씨는 이제야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았다. 한국에 와서 줄곧 수산물 공장에서 쉼 없이 일하던 박진주 씨는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출산과 육아에 매달려 살아오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일하고자 마음먹고 양양새일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꼭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객실관리전문가 과정을 이수했지만 일의 특성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가 없었다. 성수기에만 잠깐 일을 이어갈 수밖에 없던 상황에 양양새일센터의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박진주 씨의 조건에 꼭 맞는 지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9시 출근에 6시 퇴근하고,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근무환경도 좋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친절하고요. 이번에 취직하면서 새 차도 샀는데 열심히 일해서 자동차 할부금도 갚고 저금도 하고, 친정에도 마음 편히 용돈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박진주 씨가 일하는 (주)매홍엘엔에프는 고구마 말랭이, 분말 식품, 누룽지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중소기업이다. 홈플러스, 이마트몰 등에 입점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 등으로 2017년 13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탄탄한 기업으로, 지난 2월 양양으로 이전했다.

생산직 등에 함께 일할 직원이 필요해 워크넷 등에 채용공고를 냈지만,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던 가운데 양양새일센터의 연락을 받았다.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을 연계해주고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박진주 씨를 직원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실제 구인을 하는 기업에서는 막상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양새일센터를 통해 기본 상담과 교육을 받은 구직자들을 연계해주고 동행 면접을 비롯해 인턴십 지원 등을 해주는 조건은 반가운 일이었다. 정기 채용을 한 이후에도 멘토링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숙달된 직원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성장세에 있는 (주)매홍엘엔에프는 현재 인턴십을 통해



일하고 있는 박진주 씨를 비롯해서 추후 양양 새일센터를 통해 직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디딤돌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맞춤형으로 연결시켜 주는 데에는 양양새일센터의 역할이 가장 컸다. 2013년 4월에 문을 연 양양 새일센터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업교육 및 상담, 취업연계 사후관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대 1 개별상담을 통해 적성검사와 맞춤형 진로상담을 하고 취업과 곧바로 연계하기도 하고, 새로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훈련과 역량교육을 지원한다.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데 2018년에는 객실관리 전문가과정을 비롯해 3개의 과정으로 취·창업률 81%를 기록했다. 2019년 직업교육훈련으로는 커피바리스타 양성과정과 홈&펫용품 핸드메이드 창업과정을 운영한다.

박진주 씨의 경우 객실관리 전문가과정을 수료하고 취업에도 성공했지만, 육아와 병행할 수 없어 일을 지속할 수 없었던 가운데 취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근무조건이 맞는 기업을 연결해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었다.

특히 인턴십은 결혼이민여성을 비롯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하며, 정규직에 채용될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여성들의 경제자립 지원과 직장 적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돼 주고 있다. 일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양양새일센터에 문의하면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3-670-2890

ISSUE & PEOPLE _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은자

내 일이 있는 삶, 내일도 행복합니다.

이은자 씨는 양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교원양성소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속초와 양양에서 7년 정도 교직활동을 하다가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가족들을 위해 분주한 삶을 살던 2002년의 어느 날, 양양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올해로 문화관광해설사 경력 18년차, 하지만 인생 경력은 72년차. 누군가는 벌써 은퇴했을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은자 씨는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시니어이다.



우리 문화유산, 눈 보다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재 양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7명이다. 그중에서도 최고참에 속하는 이은자 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낙산사, 하조대, 진전사지, 선림원지 등 양양의 굵직한 명소를 오가며 관광 해설을 진행해 왔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전에는 그녀도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다. 하지만 부지런히 공부하고 해설 활동을 펼치는 동안 양양의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알리는 길잡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낙산사에 여러 번 왔었다는 어떤 분은 그렇게 자주 와도 해설 한 번 못 들었는데 이렇게 듣고 다시 보니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낙산사 경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대부분 의상대나 흥련암만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양양에 훌륭한 문화재가 많은데, 어떤 특정 명소만 부각되는 것이 서글프기도 해요. 진전사지 삼층석탑만 해도 국보 제122호인데,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보물임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문화재들이 눈에 밟힐 때마다 이은자 씨의 한숨도 깊어진다. 우리 선조가 남겨 준 유산이기에 제대로 알

고,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은자 씨의 각별한 마음은 직접 쓴 '선림원 옛터에서'라는 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즈넉하니 해질 무렵 외로이 서 있는 보물 녀름 / 먼 부산에서 너희들을 보려고 찾아왔네. / 맑은 물 아름다운 경치에 놀라고 공기에 취하고 보물에 반했다네. / 어떤 이는 부도의 장엄한 자태에 반해 석사학위를 받았다네. / 천년 고사는 산사태에 묻혀버리고 / 웅장한 종소리는 오대산에서 타버렸으니 / 아! 안타까워라, 신라의 유물들이여 (전문)]

일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보람'

눈으로 보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둘러보고 끝날 수 있는 가벼운 관광이 깊이 있는 해설을 만나 의미 있는 문화 답사로 기억된다. 그렇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만든다. 문화관광해설사 이은자 씨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이다.



사람들에게서 '그 일하고 얼마나 벌어요?'라는 질문을 더러 받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건 왜 물어봐요?'라며 반문한다고 한다.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을 바란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성심성의껏 해설을 하고 나면 돌아오는 감사의 인사, 자신이 가르쳐 준 '양양팔경' 노래를 신나게 따라 부르던 유치원생들의 모습, 문화관광해설사로서 다른 도시에서 지역 홍보를 하고 느꼈던 뿌듯함 등이 이은자 씨에게는 일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다.

이은자 씨는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한다. 72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며 '내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은자 씨의 '내일'도 여전히 맑음이다.

〈글·사진 : 편집부〉



4월 5일 물치(沕淄) 장날 만세운동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양양에도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설초 이석범(雪樵·李錫範) 선생은 유림 10여 명과 함께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기 위해 2월 말 한성(서울)으로 떠났다. 한성은 거리마다 온통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소리가 연일 북새통이었다.

그리고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 3월 20일 귀향하였다. 당시 이석범 선생은 한일병합이 되자 대한제국 중추원의관의 벼슬이 버리고 도천면 중도문리에서 쌍천서숙을 건립하여 후배 양성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독립에 대한 여망이 컸다. 도착 하지마지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재훈(이명·능렬)을 불러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을 맡기고, 본인은 태어난 양양면 임천리 함평 이씨 문중 이교완 집에 머물면서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았다. 양양 3·1만세운동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쌍천서숙(1913년)



대포보통학교(1919년4월 1일개교)

가장 비폭력적이며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하라!

이석범 선생이 임천리에서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밤, 이교정, 이건충 등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던 중 군수 이동혁에게 발각되어 마을주민 22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렇게 되자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재훈은 긴장했고 서둘렀다. 급기야 강현면과 도천면의 유교세력, 쌍천학교의 졸업생, 물치리 감리교회 청년세력 그리고 각 마을 구장들과 연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일제가 1914년에 강현면은 원래의 강선면과 사현면을 통합하여 면사무소는 장산리에, 도천면은 소천면과 도문면을 통합하여 면사무소를 대포 항구 내에 두었다. 강현면 책임자로 장세환, 김두영, 양익환, 김철기 등으로 정하였고, 도천면 책임자로는 김경영, 이종국, 박사집, 이종순 등을 신속히 정했

다. 이석범 선생이 구속된 가운데 4일 양양 장날 만세운동은 예상 밖으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날 아들 이재훈은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황의 집에서 친목계를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 양양 장날에서 일어난 만세소식과 내일 물치 장날의 계획을 서둘러 짰다. 그리고 태극기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중도문리 마을 언덕위에 있는, 당시 세도가 컸던 전주 이씨 종갓집인 이종국의 집에서 흰 옥양목으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고 만세군중이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그리고 폭력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날 경우 일제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폭력적이며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강현면 전경(연대 미상)



도천면 대포항 전경(연대 미상)



현 대포항

드디어 4월 5일 물치장날 만세운동을 일으키다.

드디어 4월 5일 물치 장날이 밝았다. 이날이 양양 3·1만세운동 둘째 날로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전날 모임에서 강현면 만세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여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고, 도천면 만세군중은 대포리에 있는 경찰주재소로 가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다.

당시 양양은 서쪽으로 험준한 태백산맥에 막혀 한성으로 가는 육로는 왕래가 어려웠고, 대포 항에서 배로 원산항을 거쳐 개성과 한성으로 갔으며, 또한 대포 항은 영동에서 영서로 잇는 물류 항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당시 도천면 면사무소와 대포금용조합 그리고 일본 경찰주재소가 모두 있었다. 이에 옆 마을인 물치리는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그래서 양양 장 다음날인 매 5일과 10일 자로 정해진 물치 장은 양양 장 만큼 큰 장이 섰다.

물치장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강현면 일부 만세군중이 물치 장터로 가다가 도중에 강현면 장산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들렀는데, 면장과 직원들은 모두 도망가고 남아있던 서기 김남훈은 만세를 함께 불렀다. 그리고 도천면에서 온 군중들과 합세하였다. 김두영, 박제범, 김대선이 옥양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선두에 섰으며, 면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물치 장터로 모여들었다.

한편 미국범이 인솔한 중도문리 주민들은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나무내 고개(세칭:만세고개)를 넘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그 행렬은 장장 6km가 넘는 길을 걸어 계속 만세를 부르면서 물치 장터에서 강현 면민과 합세했다. 물치 장터 쌀가게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높이 세워 흔들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인은 돌아 가라고 주장하였다.

만세를 불러 일본 경찰주재소를 완전 굴복시키다!

강현면 만세군중은 오전 11시경, 모두 물치 장터에 모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부르고, 오후에는 하북리에 사는 이철우가 대형 태극기를 앞에서 높이 들고, 회룡리의 박봉래의 선창으로 독립만세를 계속 소리 높여 외치며 대포리에 있는 일본 경찰주재소로 행진하였다. 대포 항에 도착하니 이미 도천면의 군중들이 벌써 와 있었는데 그 수는 1천여 명이 넘었다.

두 면민이 모여 부른 만세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것 같았고 기세가 당당했다. 그리고 일본 경찰주재소 앞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연신 외쳐댔다. 이미 겁에 질린 일본 경찰들은 일본인 가족들을 아침 일찍 배에 태워 바

다로 피신 시켰고, 일부 직원들만 남아있었다. 겁을 먹은 일본 경찰주재소 수석(首席)은 만세 군중들 앞에 나와 "우리는 돌아갈 테니 제발 조용히 만세만 부르고" 돌아가 달라고 간청했다. 날이 점점 저물어지자 만세 군중은 이제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일 양양에 가서 다시 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하고 질서 있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3·1만세운동 직전인 1919년 4월 1일 개교한 대포초등학교는 지금도 대포 항 언덕 위 그 자리에서 올해로 100년째, 그 날의 만세 함성이 이 항구의 물결을 일렁거리게 한 대포항을 내려다보고 있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톡!톡! 마음을 터놓는 우리만의 시간

오! 놀라움이 넘치는 "5월"이 돌아 왔다. 부자(父子). 언제나 스스럼없이 기댈 수 있는 나의 편이자,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존재. 아빠라면 누구나 아들과 친구같은 사이로 지내길 바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묘한 거리감이 생기고, 익숙함에 애뜻함을 표현하는 일이 쑥스러워 진다. 마법과 같은 계절 오월. 친구같은 아들과의 특별한 데이트, 톡톡! 마법같은 온천이 있는 '오색(五色)'으로 간다



오색주전골

너와 나의 나란한 발걸음 오색트래킹

너와 나 단둘이 녹음이 우거진 오색약수 편한길을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걸어본다. 오색을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가볍게 아들과 걸을 수 있는 오색약수터에서 용소폭포 탐방지 원센터까지 가는 주전골 코스를 선택했다. 푸르다 못해 투명한 물빛과 풀꽃이 자아내는 소담한 풍경은 호기심 많은 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푸른 하늘을 떠받친 기암괴석의 장대한 기골과 눈이 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푸르름에 번잡했던 일상은 잠시 잊고 우리 둘만의 호젓한 시간을 즐긴다. 내려오는 길 짜릿한 오색약수 한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약수로 지은 돌술밥과 싱싱한 산채로 든든히 배도 채운다.



톡톡! 튀는 오색 탄산 온천, 토크! 토크! 우리만의 이야기시간

오색트래킹으로 흘린땀을 식히기 위해 아들과 온천으로 향한다.
어릴적 엄마 손을 잡고 목욕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엄가가 때를 밀어 주는것도 싫었고
특히 여탕에 들어가야하는게 너무 부끄러웠지만 목욕 후 바나나우유를 마시기 위해
따라다녔던 그 시절

그래서인지 아들과의 목욕탕은 조금 다르다. 시원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누가누가 더
오래 버티나 시합을 해본다. 따끔 따끔함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아들은 금세 또
아빠를 찾아 탕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마음껏 온천을 즐기고 나서야 아들의 등을 밀어
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아빠랑 목욕하니 좋다"는 아들의 말에 나도 모르게 어깨
가 으쓱해진다.

〈글·사진 : 편집부〉



tip_ 면역력 UP 힐링타임, 6가지 테마가 있는 오색그린야드 온천

오색탄산 온천은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하는 대중탕으로 지난 3월 찜질방이 6
가지 테마로 새로이 단장했다. 탄산 온천 알칼리 온천과 함께 불가마 및 황토방,
암반파동욕장 등 테마방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낸다. 탄산 온천의 수온
은 27℃로 비교적 낮지만 토토토톡 쏘는 탄산의 효과로 온몸이 금세 후끈거린다. 알
칼리 온천은 피부에 닿는 매끄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온천으로 샤워 후 6가지
테마방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알칼리 및 탄산 온천으로 마무리한다.

오색그린야드호텔 :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34 (033-670-1000)

<http://www.greenyardhotel.com/>



오색그린야드 찜질방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綿玉峙里)

무릉도원을 닮아
영롱한 기운을 머금은
고요한 산촌에 살어리랏다.



면옥치리 마을 전경

옥같이 맑고 영롱한 마을 _ 면옥치리(綿玉峙里)



김춘래 이장



쓰레기 집합소

면옥치(綿玉峙里)는 달아치(1반), 상면옥치리(2반)와 하면옥치리(3반)로 구성되어 있는 산촌의 모듬살이로 대표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엔 현재 40가구 70여명의 주민들이 청정한 마을 계곡을 가꾸고 보존하여 '인심 좋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 협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감자와 옥수수, 능이와 송이, 토종꿀, 각종 산나물 등이 있다. 면옥치리에서 9대째 살고 있는 김춘래(65세) 이장은 산불 없

는 마을, 깨끗한 마을, 단합이 잘 되는 마을을 유지하는 것이 마을 지킴이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산 불예방을 위해 방송장비를 개인차량에 부착하여 수시로 마을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으며, 3개 반에 쓰레기 집합소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나 여름철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마을이 오염될 것을 염려하여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마을 청소를 한다.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2007년 면옥치 마을 복지회관이 만들어지고, 마을의 대소사를 이곳에서 준비한다. 부녀회에서는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마을 어르신들께 효도잔치를 베풀고, 면민체육대회와 양양군의 여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각종 회의를 열고

음식들도 장만한다. 얼마 전에는 복지회관 2층에 마을의 40~50대 젊은 일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당구대를 설치하여 오순도순 즐기고 있다. 마을에는 읍내를 오가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법수치리

까지가 종점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4륜구동차가 한 대씩 있어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시내를 오고갈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농로(農路) 포장 공사와 가드레일 시설, 계곡물을 가로 지르는 세월교(洗越橋)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산과 밭, 마을과 마을을 오가는 데 불편함이 해결되었다. 마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주민들이 한데 모여 잔치를 벌이는 날이 있다. 정월 대보름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와 함께 마을 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이 마을의 당(堂) 이름이 특이하다.

양양군에 소재해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서낭당·성황당·산신당·선황(聖皇)·고청청·제당'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면옥치리의 제당(祭堂) 이름은 '선황당(仙皇堂)'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양문화원, 『양양군의 마을제당』 참조)

면옥치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신선(神仙)이 머물고 간 자리마다 꽃이 피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논과 밭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다.

4계절 자연의 순리에 적응해 가면서, 마을 주민들의 하나 된 마음 또한 풍성함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마을당구장



서낭당

5월의 산촌마을에서 잠시 힐링하세요.



마을표지석

마을에는 4계절 청정한 '면옥치 계곡'이 산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다. 이 계곡은 오대산에서 발원해서 부연동 계곡을 지나 범수치를 거쳐 양양 남대천으로 흐른다. 여름철이면 마을 주민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1996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엔 3학년 6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던 현성초등학교 면옥치리 분교장이 운영되었다. 지금은 폐교되었지만 운동장 한 모퉁이에 앉아 옛 추억과 함께 마음의 휴식처로 좋은 곳이다. 어린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계곡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 들리는 듯하다. 무릉도원의 경치를 떠올리게 하는 녹음이 짙어가는 5월, 산촌마을의 정취가 아련하다. 고요한 산촌에서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자.

〈글·사진 : 편집부〉

아름다운 봄날, 이웃과 함께 즐겨 나눠 먹었던 음식풍습 '복쌈'과 '춘반(春盤)'



생채(生菜)란 삶아 익히거나 데치거나, 찌내거나 하지 않고 날 것의 채소나 산채를 그대로 조리하여 먹는 자연 음식 재료를 말한다. 음식 조리법에 따라 살짝 데친 것도 생채라 하지만 자연의 생기(生氣)와 기운(氣運)을 보존하면서 때론 씹쌀하고, 풋내가 나는 저마다 특유의 향과 질감을 살려 조리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생채음식의 근간이 되는 채소나 산채 같은 푸성귀를 때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보잘 것 없는 음식으로 비유하지만 생채음식은 예나 지금이나 건강식, 제철별미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오래된 봄날의 전통음식이다.

고려시대부터 즐겨 먹기 시작한 생채음식

우리 식(食)문화에서 채소나 산채를 지금과 같은 생채음식이나 '쌈 음식'으로 발달시킨 장본인은 고려 사람들이다. 고려 초기, 태조 왕건이 불교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추진했던 숭불(崇佛)정책으로 살생(殺生)이 금지되면서 생채음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생채음식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기록으로 6세기, 초(楚)나라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중국의 세시풍속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초나라에서는 정월 1월 1일부터 7일간 생채소만 먹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고려 사람들처럼 즐겨 먹지는 않았다. 봄날이면 고려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었던 생채음식은 무엇이었을까. 순우리말로는 '부루' 라고 하며, 조선시대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에서는 와거(帛臑)라고 불렀던 '상추'였다. 상추는

채배 역사가 기원전 4500년경,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로 그려져 있을 만큼, 채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채소로, 중국에는 당나라 때인 713년의 문헌에 처음 등장하며, 중국을 거쳐 고려 사람들에게 전래되었는데,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의서(醫書)인 고려시대의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 상추에 대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상추에 밥을 얹어 쌈으로 먹는 음식문화 풍습이 본격적으로 발달되면서 복(福)을 먹는다는 의미로 '복쌈'이라고 하였다. 상추 외에도 숙주나물, 깻잎, 콩잎, 취나물, 미나리, 머위잎, 돌나물, 소루쟁이, 아주까리잎, 호박잎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채로 '쌈'이나 나물무침의 요리법도 발달하게 되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을 생각하게 하는 봄나물

또한, 입춘 날이면 오신채(五辛菜)를 먹었던 음식문화 풍습도 있었다. 조선 조 후기에 사람들은 입춘 날, 눈 밑에서 돌아난 움파, 새순, 산갓, 마늘, 당귀 싹, 무릇, 달래, 부추 가운데 매운맛이 나면서 노랑고 붉고 파랑고 검고 하얀 색이 나는 다섯 가지 봄나물을 골라 입춘 날 먹었다.

이 음식을 오신채(五辛菜) 혹은, 입춘채(立春菜) 라고 하는데, 오신채를 거자와 함께 무쳐 지금의 샐러드처럼 생채로 먹었으며, 그릇에 담을 때도 음양오행설을 따랐던 음식이었다. 모든 색의 중심을 상징하며 왕을 상징하는 황(黃) 색 채소를 무쳐 한가운데 담고, 동서남북을 따라 신하들을 상징하는 청(靑) 적(赤) 흑(黑) 백(白)의 '사색나물'을 배치하는 융합의 의미와 함께, 임금과 신하가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사색당파를 배제하고자했던 정치적 뜻도 있었던 음식이었다.

백성들도 오신채에 다른 채소를 섞은 채소요리를 이웃에 선물하거나 함께 나눠 먹는 춘반(春盤)이라는 입춘절식의 세시풍속을 통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되새겼다. 봄나물의 진위에는 이처럼 맛과 향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불어 헤아리고, 더불어 배려하고, 더불어 화합을 생각하게 하는 '융합의 음식'이어서, 무릇 때가 봄나물로 풍성한 양양시장을 둘러 볼 일이다.

<글 · 사진 : 강원도외식저널대표 황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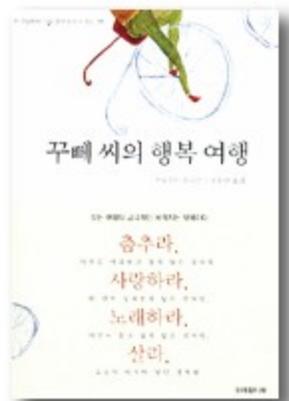
책 이야기

“모든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행복이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호소하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환자들과 만나면서 그 역시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 목말라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얻어낸 행복의 여행지도입니다. 소설은 꾸베라는 정신과 의사가 홀로 여행하며 겪게 되는 에피소드 속에서 한 가지씩 행복의 조건을 찾아내는 형식을 빌었지만 결국 행복은 처해있는 상황이 아닌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해 내는 내면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는 첫 번째 배움으로부터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스물네 번째 배움에 이르기까지 꾸베 씨가 찾아낸 행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단한 배움을 스스로 발견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빈곤한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인류가 마음에 대한 연구는 방치한 채 물질문명 발전에만 집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만족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가는 시대, 복잡한 현대인의 심리를 짚어보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노승은 한바탕 그 특유의 웃음을 웃고 나서 말을 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

꾸베 씨의 행복여행 / 프랑수아 를로르 지음 / 오래된미래 / 2004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봄 지음, 세종서적, 1998
- 구해줘
기욤 뤼소 지음, 밝은세상, 2006
-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열린책들, 2013

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노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가난이나 부, 과거와 미래의 일들과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이었다. (p. 190)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나를 채우는 인문학

최진기 지음/ 이지퍼블리싱 / 2019

인문학을 가까이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에는 사랑, 직장, 사회, 마음, 음식, 여행, 미술, 교육, 역사, 인물 등 10가지 주제에 맞는 책과 함께 책에 담긴 의미와 독서 노하우가 담겨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효과적인 책 활용법을 익히고 평소 관심이 있고 알고 싶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었던 다채로운 주제의 도서를 쉽고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의 프리다

앤서니 브라운 지음 / 웅진주니어 / 2019

저자인 앤서니 브라운이 멕시코를 여행하던 중 알게 된 예술가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여 지은 그림책입니다. 어린 프리다 칼로가 경험했을 외로움, 좌절, 희망, 기쁨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과일 비행기를 타고 훨훨 하늘을 나는 소녀 프리다의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 묻어나며, 소리 없이 웃어 주는 친구를 만나 두 손을 맞잡은 프리다의 눈빛에서, 친구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리는 프리다의 표정에서 고요한 평안함이 새어 나옵니다.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	1명	총무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75만원
명동왕만두	1명	주방조리원	09:00~20:00 (주5일)	급여협의
주한쌍개발 닉신비치호텔	1명	전기기사 (전기2500kw 선임가능자)	09:00~18:00 (주6일)	월283만원
살악환경산업(주)	1명	굴삭기운전기사	08:00~17:00 (토요일주근무)	월220만원이상
	1명	덤프트럭운전원		
양양새마을금고	1명	출납창구사무원 (경력직)	09:00~18:00 (주5일)	급여협의
로도비치리조트	2명	객실청소 및 건물주변정리	08:30~16:00 (주6일)	월180만원
재성정보통신	1명	총무 및 일반사무원	08:30~18:00 (주5일)	연2,160만원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나래인어식품 (속초농공단지)	1명	생산직	9시~18시 (주5일)	월 175만원
옛날숯불구이	1명	주방보조원	15시~23시 (주6일)	월 180만원
하나철강	1명	사무원	8시~17시30분 (주6일)	급여 협의
화이트샌드멘션	1명	객실청소원	10시~16시 (주6일)	월170~180만원
모정의집	1명	시설 요양보조사	9시~18시 (2교대근무)	월175만원
	1명	주간보호 사회복지사	9시~18시 주5일	월180만원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오색그린아드호텔	1명	룸메이드	9시~18시 (주6일)	월175만원
	1명	특산물매장판매원	9시~18시 (주6일)	연봉2,100만원
주식회사운진 (양양홈마트)	1명	배송운전원	8시~18시 (주6일)	월 250만원
	1명	아채청과담당	8시~18시 (시간협의주6일)	월 200~250만원
	3명	캐셔(정규직)	10시~19시(주5일) 15시~22시(주5일)	시급 8,500원
	3명	캐셔파트타임	19시~22시(평일) 18시~22시(주말)	월 19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 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4월 18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양 양 인 문 학 아카데미 운영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여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양양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양양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 강의시간 : 월 2회 2,4주 목요일 7시 ■ 장소 : 양양교육지원센터, 대아서점 등 ■ 대상 : 지역 주민, 학생

차 례	날 짜	강 의 주 제	강 사	경 력	비 고
1	4.25	호모이코노미쿠스와 호모사피엔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농업경제학)	1학기
2	5. 9	인터넷윤리	전도홍	카톨릭관동대학 명예교수(컴퓨터학)	
3	5.23	시 속의 사랑이야기	한상호	전)현대엘리베이터 대표(시인)	
4	6.13	진리탐구방법론의 진화(1)	성인경	양양 라브리공동체 원장(신학)	
5	6.27	디지털과 우리의 삶(1)	김영기	경인교대 명예교수(컴퓨터교육학)	
6	7.11	중년기의 건강관리 총론	오희철	연세대 명예교수(예방의학)	2학기
7	9. 5	신자유주의와 농업문명의 전환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농업경제학)	
8	9.19	현재, 미래사회의 빅데이터	전도홍	카톨릭관동대학 명예교수(컴퓨터학)	
9	10.10	시, 말이 수행하는 절간	한상호	전)현대엘리베이터 대표(시인)	
10	10.24	진리탐구방법론의 진화(2)	성인경	양양 라브리공동체 원장(신학)	
11	11. 7	디지털과 우리의 삶(2)	김영기	경인교대 명예교수(컴퓨터교육학)	
12	11.21	육체운동의 중요성	오희철	연세대 명예교수(예방의학)	

□ 수강료 : 재능기부에 의한 강좌 운영으로 수강료는 무료 / □ 기타 : 기수별 수강생을 모집하며 일정 수강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줌

□ 주관 : 양양인문학 아카데미 · 주최 : 양양교육지원센터

□ 후원 : 양양군/양양군의회/대아서점(※ 연락처 : 양양교육지원센터 670-9701/010-2261-3989)

쓰레기 소각 등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 조례명칭 :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제3189호 공포일 2019.4.5.)
 - 조례로 정한 화재 요인행위 신고장소(화재예방조례 제2조)
- (아래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구두,전화,서면)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간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디지털 사진 촬영 및 이미지 편집기술(포토샵) 특별강좌

- 교육 일 : 2019. 5. 7 ~ 5. 31(매주 화요일)
- 교육시간 : 18:30 ~ 20:30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 정보교실
- 교육인원 : 28명
- 접수 일 : 2019. 4. 29 ~ 5. 7
- 신청방법 (전 화) 033-670-2116
(인터넷) www.yangyang.go.kr(양양군청 홈페이지)
* 양양군청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 구분에서[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 교육내용
 - 디지털 사진 기초 - 카메라 촬영모드 이해
 - 디지털 이미지 작업 - 포토샵용경사진, 인물사진 편집
- 준비물 : DSLR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
- 문 의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033-670-2116)

양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 가. 시행 일 : 2019. 5. 1.(수)
 - 나. 운영시간 : 24시간
 -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안전신고 → 안전문서관행(불법주정차) 유형선택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 위치찾기 → 신고내용 입력후 제출
 - ※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통행 불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보복성신고(3회 이상)는 제외
- 라.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동영상 제외)
 -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고 표시되어야 함.
- 마.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 바.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사. 신고보상금 : 없음
- 신고대상지역
 - 가.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나.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 다.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사진상 승강장 포함)
 - 라. 횡단보도 : 주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월부터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4월부터는 물가를 반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수급자분들께는 최대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65세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전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거나('찾아뵙는 서비스' 가능)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 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2.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에서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어르신들께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누가 받나요?

만65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받습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시려면 소득인정액이 2019년도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2인가구
	137만원	219.2만원

◆ 얼마나 받나요?

소득구분	단독가구 월 최대	부부2인가구 월 최대
소득하위 20~70%	253,750원	406,000원
소득하위 20%	300,000원	480,000원

2019년 상반기 군민정보화 교육

월별	기 간	접수기간	교육 내용
5월	05.07 ~ 05.31. (월,수,금)	04.29 ~ 05.03.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워드작성(한글)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및동영상 촬영·편집 기술, 블로그·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6월	06.3 ~ 06.28. (월,수,금)	05.27 ~ 05.31.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컴퓨터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및동영상 촬영·편집 기술, 블로그·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야간반) (초급) 18:00~ 19:30 (중급) 19:30~21:00

□ 신청방법 : ①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②전 화 : 033-670-2116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조금 받고 썩썩 달리세요!!

전기차 보조금 최대 1,540만원 /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

문의처 : 자동차 판매대리점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033-670-2690)

2019년 강원도·양양군 사회조사 실시 안내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강원도·양양군 사회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9. 5. 13. ~ 5. 27.
- 조사방법 : 방문 면접 조사
- 조사대상 : 양양군 관내 표본 800가구 내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항목 : 기본(9), 노동(3), 건강(5), 지역산업(2), 문화와 여가(4), 사회통합(8), 소득과 소비(5), 안전(1), 특성(9)
- 문 의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033-670-2214)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건설과
KTX 양양역 유치, 플라이강원 설립으로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고,
군민 행복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글로벌도시 양양,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플라이강원



동해북부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서핑